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을 마치고

- 한차원 높은 안전문화의 확산위해 최선을 다할것 -



동건공업(주)
김진만 회장

지난 7월 13일에 우리는, 관계 장관과 안전지킴이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이라는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협약의 의미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조사와 단속을 해 왔던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체계를, 정부와, 수입 및 제조업체, 그리고 소비자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사전 예시적 자율안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가 중점 안전관리 대상품목과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안전기준에 적

합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자율이행협약을 체결하며,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품안전 지킴이단"이 기업의 안전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정부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방침을 전환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올해 중점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선풍기 등 전기제품 27개, 세정제 등 생활용품 10개, 키보드 등 어린이 제품 12개 등 모두 49개를 선정했고 제품안전 지킴이단은 선풍기, 구명복 등 여름용품부터 점검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동건공업(주) 협약품목
(E105) DIF-28SG

그런데 이미 기술표준원이 지난 5월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구명복의 경우 15개 업체 중 40% 정도인 6곳의 제품이 불법이었고 튜브 등 물놀이 기구는 전체 11개 업체 중 36%인 4곳의 제품이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더니 제조업체 CEO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업체들은 사전 예시적 제품안전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한 차원 높은 안전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제품 생산만이 미래의 기업생존전략 이라는 인식아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제품 만들기를 디자인과 성능에 앞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세계 안전 분야 초 일류기업들의 모든 CEO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듯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CEO의 안전의지가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첫 번째 길임을 자각하고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포상과 정기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더하여 합리적으로 안전관리 품목과 기준을 정하여 모든 업계가 큰 부담 없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수입 부품은 차지하고 우리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느끼는 높은 장벽의 어려움을 인지하시어 수입 완제품만이라도 안전인증을 한층 강화하여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입제품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비자를 대표하는 안전 지킴

이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품질 좋고 최고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려고 절치부심 노력하는 업체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어려운 만큼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꾸짖고 비판해 주심으로서 업체들이 이번 협약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공업(주) 협약품목
(E201) DIF-45PWA

더불어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 안전사고로 자주 거론되는 선풍기나 에어컨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고 아까운 인명을 단 한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단체가 발 벗고 나서서 대 국

민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전 예시적 제품안전 관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 되어 불법,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안전한 제품만이 공급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 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선진 안전문화의 조속한 정착은 물론이고 안전 선진국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